



# 서울에어쇼 '96의 성과와 전망

서울에어쇼'96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땀과 피로 이루어낸 행사였기에 준비한 이들의 보람도 그 이상으로 값진 것이었다.

이 행사를 보기위해 새벽부터 차를 타고 올라온 관람객을 바라보며 '이래서 우리는 에어쇼를 한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이며 허무감마저 느껴지는

감정을 다스리곤 했다. 이들의 관심이 실로 이 행사를 빛내준 사람들인 것이다.

서울에어쇼'96 이제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성남 비행장은 그날의 모습들을 가슴속에 간직한 채 98년 서울에어쇼'98이 다시 열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본 글은 그동안 이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한 결과를 간략히 정리해 보고,

더 나은 차기행사를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할

점을 생각해 보았다.

**서**울에어쇼'96이 지난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서울공항에서 성대히 개최되었다.

대전엑스포 이래 최대규모의 국제행사였던 서울에어쇼'96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 한국공군의 주관 및 주최로 개최되었는데 국내최초로 한국에서 항공우주 관련업체의 비즈니스의 장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일반인들에게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많은 볼거리를 공개, 흥미를 끌기에 충분하였다.

개막첫날 명예대회장인 이수성 국무총리는 치사를 통해 "서울에어쇼는 우리에게 미래의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약속하는 큰 전기가 될 것이며, 21세기 항공우주시대를 열어가는 온 인류의 축제가 될 것"이라며 서울에어쇼의 개막을 축하하기도 하였다.

서울에어쇼'96은 21세기 항공우주선진국 진입의 기틀마련 및 세계화구현,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교류 및 협력의 장 마련, 공군홍보 및 대 국민 축제의 장 마련의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출발해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규모의 에어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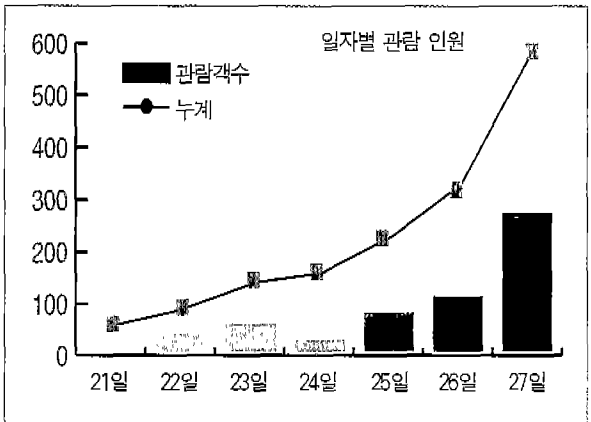
개최하여 새로운 장르의 볼거리를 제공, 항공우주산업과 공군력에 대한 홍보효과가 매우 컸다.

### 총 55만관람... 900여명의 기자단

이번 서울에어쇼'96 기간중 관람객 인원은 비즈니스데이기간(21일-24일) 13만 2천명, 퍼블릭데이기간(25일-27일) 32만 도합 총 55만 2천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당초목표 100만명에 훨씬 뒤지지만 이는 행사준비상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은 것

뿐, 프랑스의 파리에어쇼, 싱가포르의 아시안 에어로스페이스 등 세계 유수 에어쇼보다 관람객이 많았다. 특히 그동안 항공우주산업의 현재 모습들을 보고 싶어했던 모든 이들의 갈증을 어느 정도나마 해소해 준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대해 또 하나의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이와함께 에어쇼기간중 방한한 스페인 카를로스 국왕을 비롯하여



특집



말레이시아 국방장관, 영국의 국방 획득 차관 등 외국의 많은 VIP들이 서울에어쇼'96을 관람, 외국의 관심도를 반영해 주기도 하였다.

특히 한국을 포함 9개국 301개 업체 925명에 달하는 내외신기자들이 서울에어쇼를 취재하기 위해 참석했으며 행사기간중에는 거의 매일 관련기사가 실려 모두 약 1,000여건의 기사들이 각종 신문, 잡지에 게재되어 그 인기도를 여실히 증명해 주기도 하였다.

최첨단의 장비 총출동

살내 전시장은 총 5개관으로 구성되어 A,B관은 국내 C,D관은 외국업체 그리고 E관에는 국내업체와 테크노마트관으로 나뉘어 전시되었다.

A,B관의 주요참가업체를 살펴보면, 최대규모로 참여한 대우중공업의 경우, KTX-1 실물을 비롯하여 BO-105 헬기 실물, 한국형 잠수함 축소 모형, L70K 40mm 쌍

열합포, 30mm자주대공포, 전투지휘차 실물, DT 40/50 장갑차 실물 등을 전시하였으며, 삼성항공은KTX-2 고등훈련기 목업, 삼성-427헬기 mock up, TTC-95K통신장비, F100-SSA-229엔진 실물, Turbo Green 1200엔진실물 (산업용가스터빈엔진), DASH/Flight 시뮬레이터 등을 전시, 관람객의 시선을 끌었다.

또, 대한항공은MD-900 익스플로러 헬기 실물을 비롯하여 다목적 헬기 목업, 500MD 헬기 실물, UH-60 헬기 조종석 실물, MD-80등 항공기 부품 실물 등을 전시하였으며 현대우주항공은 HBK-117 헬기실물, TF-40가스터빈엔진 실물, KIA1 전차 실물을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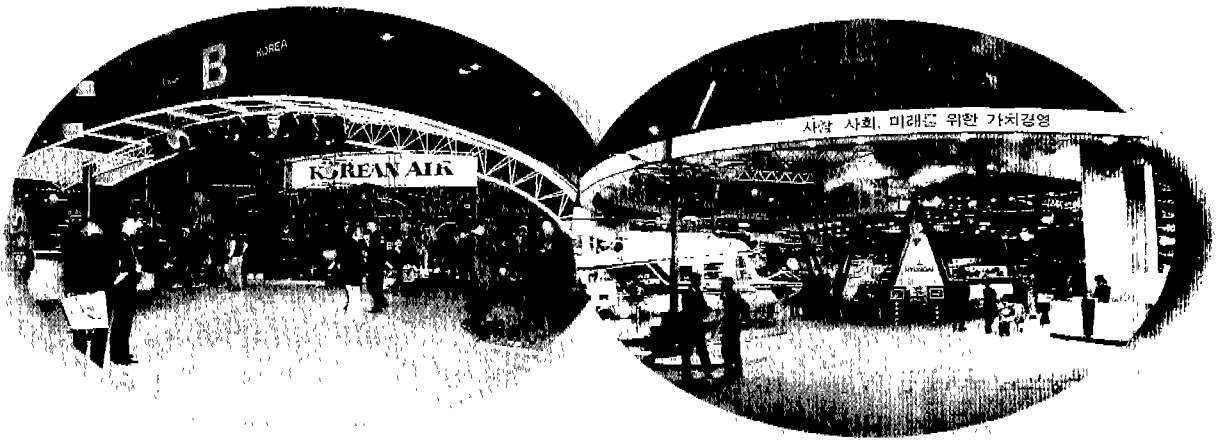
C,D관은 미국을 비롯 유럽, 아시아 국가의 업체가 참가했다.

미국의 록히드마틴사는 사이드와인더 공대공미사일 실물, AGM-142 공대지미사일 실물, JAVELIN 지대공미사일 실물등

주로 방위산업제품을 선보였고, 미국의 벨헬리콥터사는 BELL-430 실물모형, 유나이티드테크놀로지(UTC)사는 PW200, PT6 엔진 축소모형, F100-PW-229엔진 실물모형을 전시했으며 제네럴일렉트릭 엔진(미국)은 F-404, F-100, CF6-80C2/E1 터보팬엔진 실물모형을 공개했다.

한편, 영국의British Aerospace사는 호크100 훈련기 전방동체 목업, ASRAAM, MISTRAL, BROCH/PAVEWAY폭탄, SEA SKUA 미사일 실물 모형을 스페인의 CASA는 유러파이터2000 조종석 모형, 프랑스 항공우주업체가 함께 참여한 GIFAS관에서는 프랑스 전투기인 라팔, 미라지 모형, 호크900을 비롯한 각종 군장비등이 전시되었다. 에어버스사의 경우 동사가 제작하거나 개발중인 모든 여객기의 모형을 짜임새있게 전시하기도 하였다.

또 테크노마트행사가 열린 E관에는LG정밀이 Airborne Self



Protecting ECM POD, MPS-1 비호탐지레이더 등의 군장비를 한국항공우주연구소(KARI)는 다목적실용위성(KOMPSAT) 모형, 과학2호 과학로켓모형을 전시했다. 그리고 행사기간중 가장 인기를 모은 한국중형항공기사업조합(KCDC)관에서는 한국형 중형항공기 K-100 동체 실물모형을 전시, 관람객이 직접 안으로 들어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꾸며 호평을 받기도 하였다.

또 실내전시장에 전시할 수 없는 큰 항공기들은 야외전시장에 선보였다.

에어버스사는 이번 에어쇼기간중 가장 크기가 큰 최신 여객기 A340을 전시하여 멀리서만 보았던 여객기의 모습을 자세히 볼 수 있었고, 시범비행도 함께 하기도 하였으며 미국은 B-1B 폭격기를 비롯, F-15, F-14, F-18, 호커-800XP 등 20여대의 항공기를 전시했다. 한국은 F-16전투기, C-

130수송기 등 공군이 현재 실전에 배치하고 있는 항공기를 전시했으며 삼성항공, 대우중공업, 대한항공은 KF-16, SOKOL, UH-60 등 독자개발 혹은 면허생산한 항공기를 선보였다.

### SU-37 가장 인기모아

이번 서울에어쇼'96기간중 일반인들에게 가장 인기를 모은 것은 항공기 곡예 및 시범비행이었다.

특히 전세계에서 단 한대뿐인 SU-37의 시범비행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냈는데 기체를 90도 세우고 순간적인 정지상태에 들어간 코브라 기동과 이 기동의 변형으로 제자리에서 360도 위로 한바퀴회전하는 섬머솔트 기동은 예술의 경지라는 평을 받았다.

이와함께 프랑스 다소사의 라팔은 프랑스다운 유연한 디자인뿐 아니라 급회전, 횡전 등 다양한 기동으로 갈채를 받았다. 에어버스사의 A340의 경우, 마치 거대한 코끼리

가 움직이는 것처럼 급상승, 횡전을 자유자재로 연출, 여객기 비행의 특유의 맛을 살려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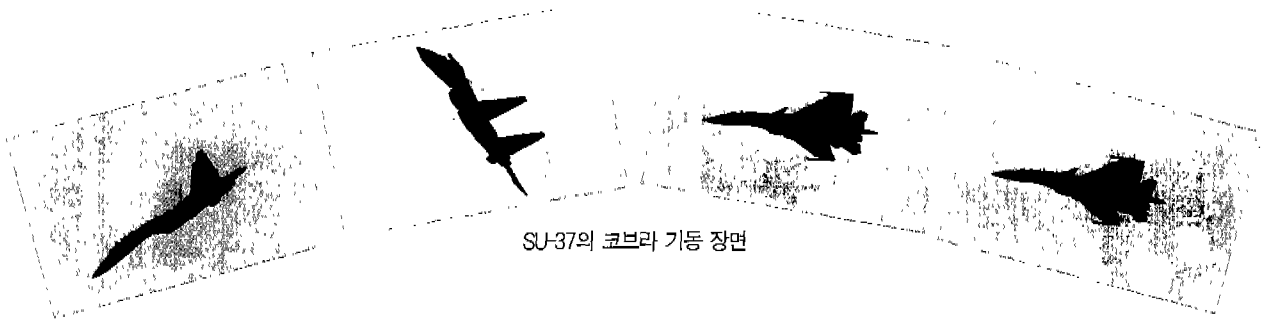
이밖에 우리공군의 블랙이글, 미국의 시에라에이스팀, 호주의 스카이블레이져스팀과 스카이다이빙팀, 러시아의 SU-29의 곡예비행도 국내에 첫선을 보여, 곡예비행의 진수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 기술교류의 장 테크노마트

서울에어쇼'96(Seoul Air Show '96)의 부대 행사로 지난 10월 22일부터 5일간 에어쇼 E관내의 테크노마트관에서 개최됐던 제1회 국제항공우주테크노마트(The 1st International Aerospace Techno-mart)는 그동안 볼수없었던 항공우주관련 세미나 및 프리젠테이션으로 산업관련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모은 행사였다.

통상산업부가 주관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 한국항공우

특집



SU-37의 코브라 기동 장면

주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던 이번 행사에서는 모두 6개국에서 14명의 저명한 석학 및 전문가들이 항공우주산업 및 연관 산업 분야의 기술 동향과 비전 등에 대하여 강연하였으며, 36개 기업 및 기관이 현재 추진 중이거나 예정인 자사 프로젝트에 관한 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초청 연사 강연(Seminar)과 사업 설명회(Presentation)에는 국내외에서 모두 약 1,600명이 참가했다.

특히 세미나 및 프리젠테이션에서는 현재 항공우주산업 분야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B747X, VLCT(미국 Boeing사),

HSCT(미국 MD사), A3XX, ESRP(유럽 Airbus사) 등 초대형 및 초음속 여객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강연과 사업 설명회에 찾는 사람이 특히 많았다.

또한 차세대 정보 통신의 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리듐(Iridium), 글로벌스타(Globalstar), 오딧세이(Odyssey) 등 중 저궤도 위성통신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 설명회도 참가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전세계 항공 엔진 핵심 기업들이 모두 참가한 항공 엔진 분야의 사업 설명회에는 스넵마(Snecma, 프랑스), 프랫앤휘트니(P&W,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 미국),

윌리엄인터내셔널(WI, 미국) 등이 한국의 중형항공기 및 고등훈련기(KTX-II) 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의사를 강력히 피력해 주목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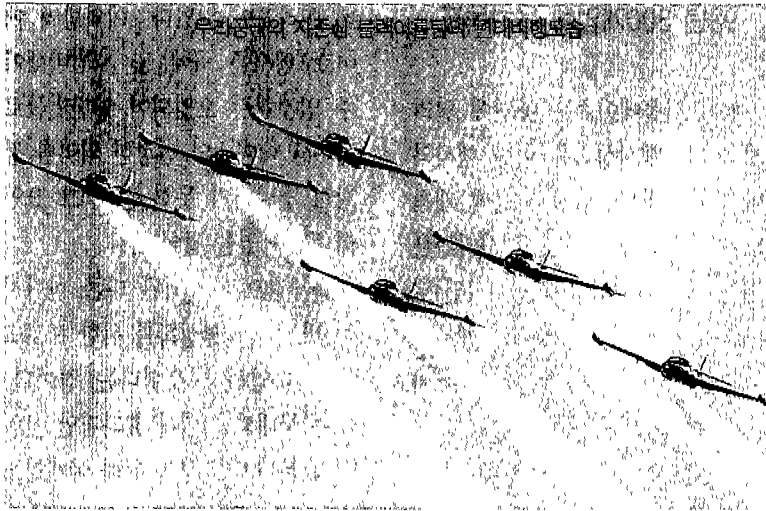
한편 동 항공우주 테크노마트의 첫째 날에 발표된 박철 교수(일본 동북대 항공우주공학과)는 "한국에서의 인공위성 발사체 개발 전망"이란 주제하의 강연에서 우리나라가 위성 발사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여 항공우주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및 우주 발사체 관련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었다.

또한 미국 항공우주산업협회 존슨(Mr. Joel L. Johnson) 부사장은 10월 24일(목) "아시아에 대한 미국 항공우주산업의 전략"을 주제로 항공우주산업 분야에 신규 진입하고 있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와 미국 항공우주산업간의 기술이전 등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자본, 기술, 경영 등 다방면의 협력 방안 상담을 위해



테크노마트 세미나 장면



의 항공우주산업체들이 어느 일정한 기관과 장소에 집결, 서로간의 정보를 교환하고 사업거래를 하며, 기업간의 제휴, 합병 등 항공우주산업에 관련된 모든 비즈니스 작업들이 집결되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이번 서울에어쇼'96이 파리에어쇼, 싱가포르 에어쇼, 환보로 에어쇼등 전세계적으로 으뜸으로 꼽히는 에어쇼에 비해 규모면이나 사업 성과면에서 낙후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점이다. 그러나 첫 국제에어쇼임을 감안, 이번 행사의 사업성과를 분석해 본다면 해를 거듭할 수록 보다 다양한 성과와 활발한 활동이 서울에어쇼 기간중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서울에어쇼 기간중에 발표된 주요 사업거래수는 약 10여가지로 한국업체와 외국업체간의 거래가 주류를 이루었다.

삼성항공은 미 노드롭그루만(Northrop Grumman)사와 747-500X, -600X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한국의 시티항공과 삼성427헬기 5대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엔진 부문에서는 미 프랫앤휘트니(P&W)사와 PW206D 엔진 면허생산 계약, PT6T 창정비계약을 비롯해 미 제너럴일렉트릭(GE)사의 LN2500 산업용 가스터빈 면허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러 헬기 업체인 로스베르톨(Rodtvertol)사

테크노마트관내에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됐던 기술상담 부스에는 국내 외 11 개 기업 및 기관이 입주했는데 기간 중 모두 700여건의 진지한 상담기회를 가졌다.

### 항공우주력 점검... 항공우주심포지엄

공군사관학교 주최로 잠실 롯데호텔에서는 제7회 국제항공우주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주제 발표와 열린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우리나라 항공우주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범 정부간(재경원, 국방부, 통산부, 과기처 등)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고 이 같은 심포지엄이 공군 뿐만 아니라 방산학회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항공산업 후발국인 우리나라가 빠른 시간에 항공산업 선진국

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반도체나 자동차와 같이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그 외에도 한국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를 선정함에 있어서 후보 기종에 F-22와 같은 최첨단 항공기도 포함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발표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하여 항공우주 시대의 도래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국내 항공우주산업 발전 필요성에 대해 확실히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최첨단 항공기 개발 관련 정보와 항공 작전 선진국인 이스라엘의 항공 전술 교리와 관련된 정보를 획득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대형프로젝트 100여건 성사

에어쇼는 흩어져있는 세계 각국

**특집**

와 MI-26 사업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대한항공은 보잉과 초대형 항공기인 747X기종의 공동개발 합의각서(MOA)를 체결하였으며 맥도널더글라스사와 초대형 여객기 MD-XX 공동개발 협상을 추진하였다.

현대우주항공은 독일의 그로프사와 특수 고공목적기의 공동개발에 합의하였다. 또, 기이중공업은 영국의 웨스트랜드사와 헬기착륙장치 부문에서 약 40억원 상당의 수주를 따냈으며 메이어도티사와 20억 상당의 수출에 잠정 합의했다.

98년도 서울에어쇼에는 이 보다 더 많은 프로젝트참여와 수주등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할 한국업체의 항공 우주산업에 대한 열의와 이를 뒷받침해주는 정부의 의지가 필요할 것이다. 또 외국업체간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제반시설을 정비하고 체계적인 언론홍보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궁극적으로는 한국을 중심으로 동북아권을 포함한 전세계 항공우주산업 거래의 창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98년 300개업체 유치목표**

차기 서울에어쇼는 98년에 열리게 된다. 행사성격은 이번 행사와 비슷하게 방위산업전과 함께 개최되며 장소도 동일하다. 행사기간은 '98. 10. 26 (월) ~ 11. 1 (일)로 이번 행사와 비슷한 시기에 개최될 예정이다. 행사결과 분석과 차기 행사 준비작업을 병행하여 시작하고 있는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는 이번 행사를 철저히 분석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며 더 많은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행사기간동안 지적되어 왔던 행사 운영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선, 에어쇼 본연의 목적인 비즈니스 기회 부여 측면에서 미비한 점이 많았다. 이는 비즈니스맨들을 위한 비즈니스 데이기간에 일반인의 관람이 부분적으로 허용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당초예상으로는 입장료 구분으로 일반인들의 관람을 퍼블릭 데이기간으로 유도하려 하였으나 일반인의 높은 관심으로 입장료 차이로는 Business day에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함께 에어쇼 행사를 곡예 및 시범비행이 주 인 것처럼 오인되어 일반인들로 하여금 에어쇼의 진정한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한 점도 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점으로 지적된 다른 한가지는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국내의 기업간 효과적인 산업협력 분위기를 조성을 위해 국제협력실 기능을 강화 하는 등 국내 주요 인사와의 사업 상담을 촉진시키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행사운영상 지적되었던 교통, 관람인원 통제, 행사장 출입문제를 비롯하여 전시자들을 위한 서비스등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에어쇼'98 에는 현재 한국 정부에서 추진 중인 중형항공기 개발사업, 인공위성 개발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이 독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구체화 되는 시점에 있으므로 한국과의 협력을 위한 보다 많은 외국 기업의 참가가 예상되며,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서울에어쇼가 아시아 권 최대의 항공우주 박람회로 발전되어 항공우주 산업 발전 뿐만 아니라 관광 수입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서울에어쇼'96	서울에어쇼'98
실내전시	21개국, 214개업체, 1,071부스 (국내 70개, 국외 135개 업체)	30개국, 300개업체, 1,500부스 (국내 100개, 국외 200개 업체)
실외전시	59대	70대
시범비행	6대	15대
곡예비행	4개팀	7개팀

서울에어쇼 '96 행사 예상규모